

9월 A매치 첫 완전체 소집훈련... '클린스만호' 첫승 정조준

25명 전원 참석... 컨디션 끌어올리기 집중
내일 오전 웨일스 원정... 대표팀 첫승 노력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첫 승을 꾀하며 9월 A매치 첫 완전체 훈련을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남자 A대표팀 첫 완전체 소집 훈련 영상을 업로드 완료했다"고 알렸다.
해당 영상은 전날 카디프 인터내셔널 스포츠 캠퍼스에 9월 A매치 소집 명단 전원 25명이 한 데 모여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느 A매치 첫 소집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수단이 다 같이 원 형태로 누워 스트레칭하며 몸을 예열했다.
바이에른 뮌헨(독일)로 이적한 뒤 핵심으로 자

리받은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6월 A매치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며 몸을 푸는가 하면, 전복현대 공격수 문선민이 동료의 스트레칭을 돕는 걸 볼 수 있었다.
또 최근 클린스만호에서 보직을 변경한 차두리 코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차 코치는 대표팀 어드바이저였으나, 이번 원정부터 내년 카타르 아시아컵까지 코치로 활약한다. 영상 속 그는 클린스만 감독 옆에서 코치진들과 훈련 전반에 대해 상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코치진은 "모어 어텐션(더 집중해)"이라고 외치면서 선수들에게 보다 진중한 자세로 훈련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전 공격수 조규성(미트윌란), 중앙 수비수 듀오 김영권과 정승현(이상 울산현대), 그리고 광주FC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생애 첫 A대표팀 부름을 받은 미드필더 이순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대표팀의 핵심 자원이자 유럽파인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손흥민(토트넘) 등이 밝은 표정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소집 직전 소속팀에서 한 경기 두 골을 폭발하며 물 오른 경기력을 자랑한 홍현석(헨트) 역시 미소를 띤 채 훈련하고 있었다.
이후 선수들은 단체 러닝 때 함께 "한 번 더~"를 외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클린스만호 첫 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클린스만호는 부임 후 치른 4경기 동안 2무2패로 아직 승전고를 울리지 못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8일 오전 3시45분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 웨일스와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이후 잉글랜드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제임스파크로 장소를 변경, 13일 오전 1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번째 일정을 소화한다.



광주FC 돌풍 이끄는 이정효,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라운드 이사람]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를 이끄는 이정효 감독을 향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1부로 승격한 광주는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한 리그 3위까지 올랐다. 이 감독과 광주가 올해 K리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이 감독과 광주가 이번 시즌 내내 상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는 4월부터 5월까지 7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며 12개 팀 중 9위까지 떨어져 '그럴 줄 알았다'는 평을 들었다. 훈련장 부족 문제에 구단 사무처장 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

실적에 이어 리그 실점 2위(28실점)에 오르며 수비가 강한 팀으로 변모했다.
이 같은 선전에 이 감독에게 'K-무리뉴'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이 아님에도 전술 능력으로 유럽 축구계를 강타한 주제 무리뉴 감독을 닮았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이 감독은 스타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다.
1975년생인 이 감독은 아주대 출신으로 동기 안정환과 절친한 사이이다. 이 감독은 1998년 프로 데뷔 때부터 2008년 현역 은퇴까지 현 부산아이파크의 전신인 대우 로얄즈에서 활약한 부산 원클럽맨이었다. 수비수였던 이 감독은 222경기에 출전해 13골 9도움으로 비교적 평범한 선수 생활을 했다.
2011년 모교인 아주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 감독은 2013년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대학축구대회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광주FC와 성남FC, 제주유나

공격 축구 추구 광주, 수비도 강해져 순위 상승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자신감 표출

그레도 반등에 성공한 광주는 3연승을 달리며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광주는 21라운드부터 29라운드까지 9경기 연속 무패(4승5무)를 달성하며 수직 상승했다.
리그 1위 울산현대를 꺾은 지난 3일 29라운드 경기가 백미였다. 홈팀인 울산이 손쉽게 이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감독이 지휘한 광주는 예상을 깨고 울산을 2-0으로 완파했다. 광주 선수들의 영리한 움직임 속에 울산의 공격은 빈번히 실패했다. 광주는 점유율 열세 속에서도 위협적인 공격으로 2골을 성공시켰다.
이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는 공격 작입 때 주저하지 않는다. 득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선수 전원이 라인을 올린다. 미드필더를 포함해 6명 이상이 페널티박스 부근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전술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실적이 많았다. 수비 전환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2골이나 3골을 내주는 경기도 있었다.
이 감독은 이마저도 극복했다. 상대 전술 분석을 통해 리그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광주의 수비는 더 강해졌다. 실점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 감독의 세세한 전술 지시를 선수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광주는 전북현대(25

이티드에서 코치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았다.
광주는 이 감독 부임 첫해인 지난해 25승11무4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K리그 역대 최단 기간 우승 확정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광주는 K리그2 최다승(20승), 최다승점(73점), K리그2 홈 최다연승(10연승), 홈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신기록까지 수립한 뒤 올해 화려하게 1부 리그에 등장했다.
이 감독은 거침없는 언변으로도 유명하다. 이 감독은 시즌 개막 전인 2월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큰 꿈을 가지려고 한다. 자기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런 꿈을 못 꾸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묻는 질문에 "제가 먼저 잠재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광주를 넘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넘보겠다는 야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광주가 예상 밖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감독의 발언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눈치 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광주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향후 이 감독을 바라보는 축구계 안팎의 시선 또한 달라질 전망이다.
서선욱기자

파워랭킹 1위·창단 기념 그래픽 메인...역시 '윌클' 손흥민

번리전서 헤트트릭한 실력 인정받아
베일·데포·킹 등 구단 전설들과 함께

선수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지만 세상이 윌드클래스라고 말한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과 토트넘홋스퍼(잉글랜드)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의 이야기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6일(한국시간) "이번 주 3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EPL) 파워랭킹을 장악했다. 누가 리더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EPL 4라운드 기준 파워 랭킹 순위를 공개했다.
파워랭킹은 축구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구조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3일 원정으로 치른 번리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2 대승에 이바지한 손흥민이 파워랭킹 1위라고 소개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이번 4라운드를 통해 처음 파워랭킹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즌 첫 3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



지만 번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해 토트넘의 시즌 초반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리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고통스러운 이적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독일)로 떠난 케

인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웠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손흥민은 영국 매체 'BBC'와 EPL 사무국이 선정한 4라운드 이주의 팀에도 뽑히면서 활약을 인정받은 바 있다.
손흥민의 '윌드클래스' 위업은 소속팀도 인정했다. 토트넘은 지난 5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팀 창단 141주년 기념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 가운데는 토트넘 엠블럼이 배치돼 있고, 그 중심으로 가레스 베일, 저메인 데포, 레들리 킹, 로비 킨 등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들의 얼굴이 함께 자리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엠블럼 바로 위 중앙에 손 키스를 전하는 세리머니 중인 손흥민의 모습이 확인할 수 있었다. 토트넘이 현 주장을 얼마나 아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8일 원정으로 소화하는 웨일스와의 9월 A매치 친선 경기를 위해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소집됐다.



김정태 회장과 박인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박인비 돕는다 "KLPGA 대표선수...IOC위원 도전 응원"

김정태 회장 "응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하는 박인비(35·KB금융그룹)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었다.
KLPGA 김정태 회장은 최근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에서 박인비를 만나 "KLPGA를 대표하고 한국여자골프의 품격을 세상에 알리는데 앞장선 박인비 선수의 IOC 선수위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은 "KLPGA투어 1승, LPGA투어 21승, 커리어 그랜드슬램,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달성해 온 박인비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위원회에 뽑히게 된다면 한국 최초 여성 IOC

선수위원이자 한국여자골프가 배출한 역대 첫 선수위원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KLPGA에서도 박인비 선수의 IOC 선수위원 도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골프를 사랑해 주시는 수많은 팬 분들도 박인비 선수의 행보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안선주, 장하나, 최은우, 임희정, 성유진 등 K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과 더불어 한화 클래식 2023 출전을 위해 임국했던 김아림, 신지은 등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로 만든 액자를 박인비에게 전달했다.
이에 박인비는 "후배 선수들에게서 온 귀한 선물이라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힘이 된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뉴스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 10일까지 7개국 모터사이클 280대 참여

전남도가 후원하고 한국이륜차안전보급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3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이 7~10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월드 모터바이크 페스티벌'은 모터사이클 국제대회와 국내외 안전운전교육이 함께하는 바이크 종합 스포츠 축제다.
행사는 국제자동차경주장 전 트랙(F1트랙·상실트랙·제2트랙·드라이빙 센터)을 활용한다.
7일부터 두카티 라이딩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전문 라이딩 교육이다.
입문자부터 대회 참가자를 위한 과정까지 참가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또 모터스포츠(GP·Grand Prix motorcycle racing) 전문가 선수인 일본 히로키 오노를 초청한 전문레이싱 교육과 함께 현장 관람객이 참가하는 '바이크 짐카나 안전운전 교육'도 진행한다.
9~10일엔 두카티(이탈리아), KTM(오스트리아), BMW(독일), CF MOTO(중국)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바이크로 구성된 '코리아 트로페오 2전'과 가와사키 원메이크(동일차종) 경주로 국내 드문 전문업체인 ㈜숨비가 후원하는 '숨비배 너자컵 4전'이 국제전으로 열린다.
국제전엔 대만, 일본, 이탈리아, 태국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 280대가 참가한다.
코리아 트로페오 2전은 유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트랙데이즈 누리집(www.trackdayz.co.kr)을 통해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10일엔 관람객과 참가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품 이벤트는 '슈퍼패스트 클래스' 예상 우승자에게 응모한 후 한 명을 추첨해 180만원 상당의 '두카티 스크램블러 어반모터드'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영암-조대호기자